

지난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 결과

“청년 농촌생활 만족도 ↓·노인 병원 왕복 소요시간 1시간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문제가 제기된 지 수년이 지나고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점차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과 어르신들은 일자리 부족, 의료 복지 등 생활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부족해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인 2018년은 종합조사, 2~5년 차(2019~2022년)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보건 의료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생활 전반(매년 조사)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됐으며 특히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주요 정책 대상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와 증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보건 의료 부문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3.1%)보다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96.9%)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

일자리 부족·의료 복지 등 생활개선 필요 인프라 부족 건보·연금 가입률 상승, 노인복지시설 이용률 저조

났다. 청년 가구의 17.4%, 노인 1인 가구 48.7%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이용 목적은 청년 가구의 경우 건강검진, 노인 1인 가구는 예방접종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까지는 주로 자가용(57.8%)으로 이동했으며 소요 시간은 평균 25.8분으로 5년 전보다 2.2분 늘어났다. 청년 가구는 자가용(74.0%)으로 이동해 19.4분이 소요됐고, 노인 1인 가구는 대중교통(59.5%)을 이용해 33.3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치료비 부담(29.9%)을 꼽았다. 청년 가구는 치료비 부담(16.4%)보다는 적합한 의료기관 찾기가 어렵다(26.0%)고 답했다. 노인 1인 가구는 치료비 부담(37.6%)과 함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점(22.7%)을 꼽았고, 내과, 정형외과 요구가 높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이 길고 응급실 30분 이내 도착 비율도 낮

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취약지역의 동거 가족이 없는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의 확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안전망 부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모두 5년 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5.7%,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로 5년 전보다 각각 1.5%p, 7.3%p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수급률은 26.4%에서 30.6%로 늘었다. 청년 가구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9.9%로 직장 가입자(66.8%)가 지역가입자(33.1%)보다 많았고, 노인 1인 가구는 가입률 89.2%로 자녀 등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62.0%)가 가장 많았다.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대비가 필요하나 전체 가구 중 28.2%가 가입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어촌 가입하는 농

업인 보험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청년 가구 가입률은 농작물 재해보험 65.2%, 농기계 종합보험 51.0%, 농지연금 25.5%, 농업인 안전 보험 14.2%였으며, 노인 1인 가구 가입률은 각각 16.9%, 15.4%, 1.9%였고 농지연금 가입자는 없었다. 농업인 보험 가입이 증가 추세나 절대적 가입 수준(4~32%)은 낮은 편으로 여성농업인·농업근로자의 농업인 안전 재해 보장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농가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등 다양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서비스 부문 조사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만족도는 높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이용률은 노인복지시설(17.3%), 아동·청소년시설(16.4%), 영·유아시설(14.8%), 기타시설(11.5%), 장애인시설(5.0%)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노인복지시설 72.7점, 영유아복지시설 72.2점 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낮은 복지시설 이용률과 비교해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이용률 저해 요인 파악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가구의 복지시설 이용은 월 1회 미만(50.9%)으로 자가용

(44.7%)을 이용해 영·유아시설(37.2%), 아동·청소년시설(25.3%)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1인 가구는 월 5회 이상(35.4%) 걸어서(76.5%) 노인복지시설(39.1%), 지역 복지시설(15.2%)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동안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바빠서(30.8%), 코로나19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25.5%), 이용시설 부재(16.7%) 순으로 나타나, 시설 운영의 정상화와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지역의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48.0점)'으로 평가했다(청년 가구 47.1점, 노인 1인 가구 51.4점).

생활 전반 부문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 종합 생활 만족도는 53.4점으로, 환경·경관(65.9점), 안전(64.6), 이웃 관계(61.0)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 여건(44.9), 문화 여건(43.0)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7.5점으로, 청년 가구는 62.7점, 노인 1인 가구는 50.1점으로 나타났으며, 행복 요인으로는 청년 가구가 가족(37.3%)과 경제적 안정(24.4%)을, 노인 1인 가구가 건강(69.0%)을 꼽았다.

아울러 5년 내 이주 의사가 있다는 가구는 10.2%로, 그중 청년 가구(23.9%)는 직업(52.7%) 관련으로 이주를 희망했으며, 노인 1인 가구(1.6%)는 주택(61.3%)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가구는 조사 가구 중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62.7점)'은 가장 높았으나 농어촌 생활 종합만족도는 가장 낮았으며(51.6점), 직업과 생활환경 요인으로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창업과 채용 지원 등 농어촌지역 일자리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의 '삶의질향상위원회'에 안전으로 보고 돼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활용된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삼남 원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안전망 관련 수치가 상승했으며,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청년 가구, 노인 1인 가구처럼 주민별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실태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JB카드, 온라인 쇼퍼 쇼핑물 할인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JB카드 주요 온라인 쇼핑물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SSG닷컴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몰, 전북 생생장터, 위메프 등 주요 온라인 몰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쇼핑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준비돼 있다. SSG닷컴에서는 4월 11일~15일, 25일~29일 10일간 JB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이용 시 7% 청구할인, 롯데 하이마트는 4월 한 달 간 JB카드 고객 대상으로 행사 상품 5만 원 이상 이용 시 8% 청구할인을 진행하며, 위메프는 JB카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베이비페어, 마트 특가 위메프 특가 등 최대 10%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전북 생생장터에서도 JB카드 개인고객 대상으로 간별 2만 원 이상 이용 시 최대 10% 청구할인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봄맞이 쇼핑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7월 31일까지 전 가맹점 대상 2~3개월 전액 무이자할부, 온라인몰 포함 주요 10대 업종 대상으로 2~5개월 전액 무이자할부 및 6~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희 기자



소양농협은 고령 조합원의 영농철 밭갈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4월 말까지 밭갈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전북농협 제공)

‘텃밭을 갈아드립니다’

소양농협, 소규모 고령농 대상 영농 지원 나서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은 농협 보유 트랙터를 이용해 텃밭을 갈아주는 영농지원활동을 4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고령 조합원의 영농철 밭갈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 영농철에 2회씩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신청농가가 늘어나 올해는 600

m 이하의 소규모 텃밭을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 조합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해광 조합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경작하는 텃밭은 삽이나 괄이로는 풀만 많이 뜯고 농기계 작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읍 농축협 현장경영·고향사랑기부제 결의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와 정읍시 농·축협은 5일 지역의 현안과 농업인 및 농협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경영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에서 농협의 역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미래농업의 방향인 스마트 팜 보급과 ESG실천 방법 등에 대해 공유했다.

2021년 정읍시 8개 농·축협은 전 조합이 건전결산을 달성하였으며, 경제

사업·농자재지원·배당 등을 통해 205억원을 조합원에게 환원하였다. 또한, 2021년 농·축협의 농산물 판매액은 2,504억원으로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번 현장경영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국민적 홍보, 농촌지역으로의 기부 확산,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용,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정읍시 농축협이 함께 하여 농촌과 농업의 활력화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정읍=김대희 기자

사과·배 농가도 개화기 방제 참여해야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살포 전 약제 정보 확인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 전 방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개화기 방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모든 사과·배 농가도 개화기 방제에 참여해 등록된 약제를 2회 살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6일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개화기 약제살포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4.3일 기준)까지 기상 상황을 토대로 배 민개기는 남부지역 울산광역시 7~9일, 전남 나주시는 9일 9~11일로 전망됐으며, 사과의 경우 경남 거창은 이날 18~20일, 경북 군위는 이날 20~22일에 가장 먼저 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수의 꽃피는 시기는 지역·지형·풍속 등에 따라 차이가 남에 따라 각 농가에서는 과수의 생육 상황을 살펴 개화기를 예측해야 한다.

이때 개화기 약제살포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http://www.fireblight.org>)를

확인하고 '위험(방제 권고)' 또는 '감염위험(방제 필요)' 경보가 나타났던 24시간 이내 조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농진청과 기상청이 운영하는 전국 1,197개 지점의 기상정보를 활용해 구축했으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3개 지점의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사과와 배 개화기에는 약제가 우려돼 약제 사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화기에 항생제나 합성농약을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미생물이나 저항성유도제 농약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개화초기에 미생물제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화상병 예측정보에 따라 합성농약을 사용한다. 또한 작업 전 반드시 과수화상병 개화기 방제 약제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약제별 안전 사용 시기와 희수를 점검해야 하며, 다른 약제와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작물 피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에 관한 등록 현황과 제품정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농식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규 지정

농식품부, 가축 접종용 분사식 주사기 등 6개 제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 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 6개 제품이 농식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목표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조달 시 추가 계약이 가능해지고 시범구매 및 구매목표제의 대상으로 지정돼 3년 동안 지원한다.

이번 신규 지정된 제품은 ▲가축 접종용 분사식 주사기 ▲허벅 패지열 냉그린마커주 ▲무선조정 자주식 시금치 수확기 ▲전동 농업용 고소작업차 ▲친환경 미생물 병해 관리제 ▲친환경 나방류 방제제 등 6개 제품이 신

정됐다.

가축 접종용 분사식 주사기는 2018년도부터 2년간 농식품부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허벅 패지열 냉그린마커주는 2015년도부터 3년간 농식품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개발됐다.

무선조정 자주식 시금치 수확기는 2018년도부터 3년간 농식품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됐다.

전동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2014년도부터 3년간 농식품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됐다.

친환경 미생물 병해 관리제는 2018년도부터 2년간 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됐으며, 친환경 나방류 방제제는 2011년도부터 5년간 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됐다. /최대희 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협의회 연계 선정

(재)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정정희 이하 센터)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2년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협의회 연계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근거해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오는 1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컨설팅 희망 기관과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가족친화 인증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기관과 기업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도입 설계와 인사노무규약에 근거한 취업규칙, 직무지침 점검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